

광주 북구에 1만㎡ 규모 드론복합공원 조성된다

**광주시·익산국토청·북구, 드론공원 조성 업무협약
 기존 드론비행연습장 확장... 레저·문화 시설 조성
 “시민들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광주시 북구 대촌동 광주시민의 숲 부근 하천부지에 위치한 드론 비행연습장에 1만343㎡ 규모의 드론복합공원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의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레저활동을 위해 지난 18일 익산지방국토관

리청, 북구와 ‘드론공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하천부지 내 드론비행이 가능한 레저·문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변경해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시는 시민들의 레저, 취미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투자를 하고, 익산국토청은 하천부지 내 점용허가를, 광주 북구는 드론공원 조성 및 드론공원 활성화 및 운영을 맡게 된다. 드론비행연습장은 지난 5월부터 드론 교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 기초체험반, 항공촬영반 등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중에는 지역 내 드론 관련 기업들의 테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드론공원을 초경량비행장치 상시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받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중이다. 상시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받으면 시민들이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남 순천, 장흥 등 타지로 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제31보병사단, 북구와 지난 5월 ‘광주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제31보병사단 내에 10월까지 드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8월에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31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LIG넥스원과 ‘국방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경중 시 전략산업국장은 “지역 전략산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목표로 먼저 시민들이 드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로 드론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향후 시민의 숲 물놀이장, 야영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풍부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전남도SNS서포터스 팸투어. 전남도 SNS 소통 전국 최우수 인정

전남도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의 ‘대한민국 소셜인터넷서비스 혁신 대상’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블로그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소셜인터넷서비스 혁신 대상 (소셜아이어워드 2019)”은 인터넷 전문가 약 3천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한 해 동안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하게 운영된 SNS를 선정해 시상한다.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 평가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공공기관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을 시상하고 올바른 SNS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했다.

전남도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총 7개 SNS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평균 12건의 콘텐츠를 동영상, 사진, 웹툰,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에게 제공하며 소통을 확대해 쌍방향 공간 대를 형성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남도 대표 블로그 (<https://blog.naver.com/greenjeonnam>)에서는 70명의 블로그 기자단이 활동, 전남 관광지를 비롯해 특산물, 동네 소식, 창업 사례 등 구석구석을 활발하게 취재해 알리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총 400건의 블로그 콘텐츠를 게시할 예정이다.

최병만 전남도 대변인은 “앞으로 트렌드 변화에 따라 동영상 홍보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도정 홍보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전남도, 특례법 내년 5월 만료

“공유토지 분할 등기로 단독 소유권 행사하세요.” 전남도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토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신청을 서두를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각 공유자의 점유 현황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재지의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관할 시군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결정 후 분할 측량을 하고 지적공부 정리와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일괄 처리하게 된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담양군, 생물테러 대비 대규모 모의훈련. 담양군은 지난 17일 담양군 종합체육관 주차장 일원에서 민·관·군·경 합동 2019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담양군이 주관하고 질병관리본부, 전남도, 담양경찰서, 담양소방서, 호남 119특수구조대, 31화생방지원대, 503여단 2대대, 11공수 특전여단 특수임무대, 전라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담양사랑병원, 창평 한미음병원 등 12개 기관 150여 명이 참여했다. /담양군 제공

광주시, 2019 국제도시디자인포럼 개최

내일까지... 국내의 전문가 참여 도시재생·개발 사례 등 발전 모색. 광주시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에서 ‘2019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은 ‘광주, 리브랜딩(#RE_BRAND-

ING.GWANGJU)’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유럽문화에 기반한 도시브랜딩과 도시재생, 일본의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 사례 등을 통해 광주가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은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해 개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들게 된다. 2019 국제도시디자인포럼 참여는 사전등록 및 현장 등록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포럼 홈페이지(www.gud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

humanity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9.7-10.31

행사장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재)광주디자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암미술관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디자인센터